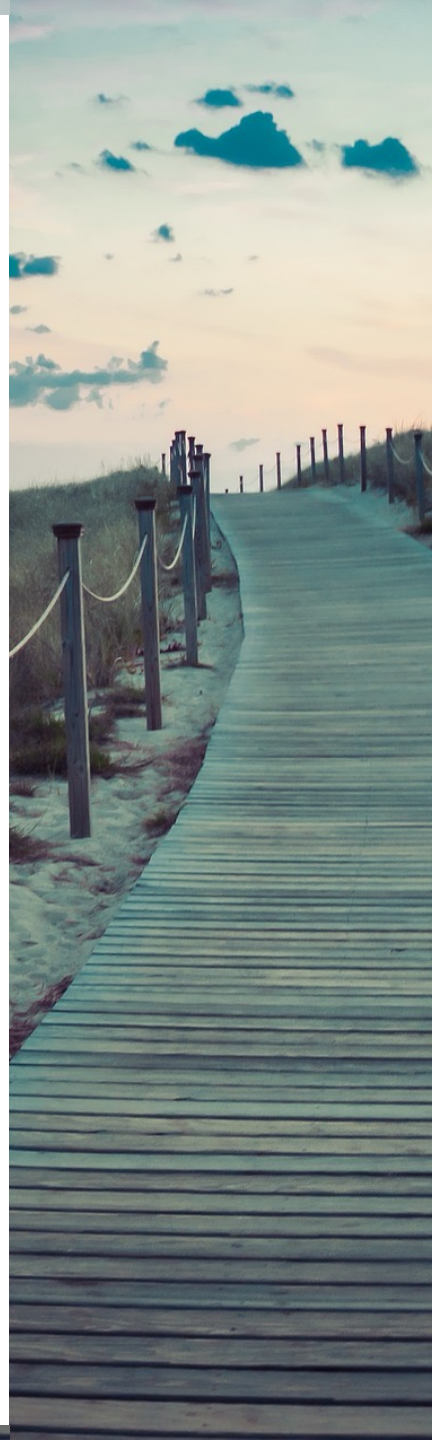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이 주는 언약에 근거해 비전을 가지고 실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마누엘, 에벤에셀, 여호와이레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에 따른 언약을 붙들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찬송 -----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 다같이

주기도문 ----- 다같이



BIG HOPE CHURCH
큰소망교회

2026년

설가정예배

말씀이 주는 소망을 가집시다!

신명기 31장 7-8절 말씀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382장 허락하신 새 땅에 ----- 다같이
성경 봉독 ---- 신명기 31장 7-8절 (구약 311쪽) ----- 다같이
말씀 ----- 말씀이 주는 소망을 가집시다! ----- 인도자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지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갈 여호수아를 불러 그 지침을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오늘 우리 가족들이 설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선조들의 신앙을 기리고 한해를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을 신앙의 명가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우선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 중반과 8절 하반절에 보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하며 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모세는 어떤 이유에 근거해서 이런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주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모세의 권고 속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뜻과 함께 그들의 삶 속에 시련과 고통과 연단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원주민과 그들의 발달한 문화와 낯선 지형들을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왔습니다.

올해는 어떻겠습니까?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시련도 있을 것이며 도전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가 분명하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도 우리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해 동안에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정해놓은 목표가 반드시 이뤄질 것이요 우리의 가정이 신앙의 명가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세상 조건들과 편한 환경들만을 찾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목표를 이뤄가는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준 지침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 중반절에 보면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식언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언약은 이뤄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래 본문의 약속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었으며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대를 이어 주신 언약입니다.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시간은 좀 지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오면 반드시 이뤄지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 28:15)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맺으신 언약에 대한 열정과 열심은 세상은 물론이요 사탄의 그 어떤 세력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묵상하여 말씀에 대한 통찰력을 키우고 삶 속에서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